# 정모님의 마음을 담은 2017 성모기 4 02







# \_2월 봉헌기도

원죄 없으신 어머니 동정마리아님! 어머니께서는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 저를 원하시니 언제나 제 자신의 모든 것을 어머니께 봉헌하며 오늘 이 봉헌을 새롭게 합니다.

오, 저의 여왕, 교회의 어머니시여!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려는 어머니의 사명에 제가 충실히 협력하기를 오로지 당신께 청합니다.

오, 원죄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여! 오늘 제가 바치는 기도와 활동과 희생을 즐겨 받으시어

말씀을 잉태하신 성모님처럼 늘 하느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감으로써 아버지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 원죄 없이 잉태되신 마리아님! 어머니께 도움을 청하는 저희와 어머니의 도움을 외면하는 이들, 특별히 교회를 적대시하는 이들과 어머니께 맡겨진 모든 이를 위하여 빌어 주소서.

아멘.



### MILITIA IMMACULATAE

주님 봉헌 축일 *02* 박용희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다. *08* 

봉헌의 의미 *14* 

콜베 성인의 겸손 2 *20* 

푸른 사막 26 강 아만다/시•변수현 /그림

콜베 성인과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창설 배경 요청소

격랑을 이겨낸 보화(寶華) 36

초심 *50* 

기도 일기 *54* 

"주니의 종이오니 그대로 제게 이루어지소서." (루카1.38)



그림 : 진동길 마리오 신부

# 주님 봉헌 축일 (奉獻 祝日/ Presentation of the Lord)

**박용희** 아가타



'봉헌'이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어둠 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초의 불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불꽃에 자기 자신의 어둠을 봉헌하며 그 불꽃으로 새로워지기를 청해 보도록 하자.

### 복음

〈제 눈이 주님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

"주님, 이제야 말씀하신 대로, 당신 종을 평화로이 떠나게 해 주셨습니다. 제 눈이 당신의 구원을 본 것입니다. 이는 당신께서 모든 민족들 앞에서 마련하신 것으로, 다른 민족들에게는 계시의 빛이며 당신 백성 이스라엘에게는 영광입니다."(루카 2,29-32)

### 전례적 의미

'주님 봉헌 축일'(2월 2일)은 예수 성탄 대축일 후 40일이되는 날로서, 1969년 이후 가톨릭교회에서는 이날 한 해에사용할 초를 축성한다(Candlemas). 이 축일은 성전에서 예수님의 양부모가 아기 예수님을 하느님께 봉헌하신 것을 기념하는 동시에 아기 예수님을 출산하신 성모님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 정결례(淨潔禮)를 치르신 것을 기념한다. 386년부터 예루살렘에서는 이 축일을 지냈는데, 450년에는 초 봉헌 행렬이 여기에 덧붙여짐으로써 그리스도께서이방인에게 '구원의 빛'이 되신 것을 기념하는 의미가 더해졌다. 542년 동로마의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황제는 이날을 콘스탄티노플에서 지키도록 명하였는데. 이것

은 흑사병이 퇴치된 것을 감사하기 위함이라 전해진다. 성모 신심 강화로 8세기 중반부터는 이 축일을 성모님에 초점을 맞추어 '성모 취결례(정화) 축일'로 부르기도 하였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전례 개혁에 따라 그리스도의 구원의 신비에 초점을 맞추어 '주님 봉헌 주일'로 지정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되찾게 되었다

한편,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이날을 '봉헌 생활의 날'로 제정하여, 자신을 주님께 봉헌한 수도자들을 위한 날로 삼았다. 이에 따라 교황청 수도회성은 해마다 맞이하는 이 봉헌 생활의 날에 모든 신자가 수도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봉헌 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각 수도회에서는 전통에 따라 서원 갱신이나 종신 서원을 발하기도 한다.

### 묵상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모태를 열고 나온 만이들과 짐승의 만배를 바치라고 모세에게 명하셨다(탈출 13,1-2; 22,28-29). 이 행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생명의 창조주요 주재자이신 야훼 하느님께 승복하고 감사를 드린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이 축일은 일 년 내내 사

용될 초의 축성일로 불리는데, 예로부터 신자들은 이날 초를 축성하여 성당과 가정에서 전례 행사와 기도할 때 사용하였다. 이는 세상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날 봉헌되었기 때문이며, 불을 켠 초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죄악의 어둠을 없애심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봉헌'이란 무엇보다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자기 자신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의 가족과 이웃을 넘어 원수처럼 여겨지는 이들까지도 봉헌하는 것이며, 자신의 좋은 점이나 뛰어난 점뿐만아니라 어두운 부분까지 포함하여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치는 것을 의미한다. 어둠 속에서 밝게 타오르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불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그 불꽃에 자기자신의 어두움을 봉헌하며 그 불꽃으로 새로워지기를 청해 보도록 하자.

### 작품 설명

성 안셀모는 "밀초는 그리스도의 몸의 상징이며, 신자는 그분의 영이고, 불꽃은 그분이 하느님이심을 말해 준다."고 하였다.

초는 미약하지만 자신을 태워서 어둠을 밝히는 빛이 되

기 때문에 제대와 함께 빛이신 그리스도의 현존을 상징하는 전례적 표지가 된다. 봉헌의 의미가 듬뿍 담긴 초의 새로운 형상화로 주님 봉헌 축일을 표현해 보았다.

### 작품 소재

수국(범의귀과) Hydrangea macrophylla 안스리움(천남성과) Anthurium andraeanum 프리지아(붓꽃과) Freesia hybrida L. 천일홍(비름과) Gomphrena globosa L. 덴파레(난과) Dendrobium phalaenopsis 버드나무(버드나무과) Salix koreensis 옥시페탈룸(천남성과) Oxypetalum caeruleum 풍선덩굴(무환자나무과) Cardiospermum halicacabum L.



(사)한국꽃문화진흥협회 이사장 (사)한국꽃문화진흥협회 라깡시엘 화예디자인연합회장 전국전례꽃꽂이연구회 상임 위원 대전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례꽃꽂이교육원 지도 교수

#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다."

- 노트르담 드 바뇌 -

홍민용 알로이시오



바뇌에서 발현하신 성모님을 직접 목격한 이는 주일 미사에도 참례하지 못할 정도로 생활고에 시달렸던 한 소녀였다. 성모님의 메시지는 그래서 더욱 울림이 있다.

### 바뇌의 메세지

1933년 바뇌에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이 시대에 보다 필요한 메시지를 보내 주셨다는 것이 필자의 의견이다 그 렇다면 도대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바뇌의 성모님께서 이 시대에 필요한 메시지를 보여 주셨다는 것일까? 앞으로 더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1933년 1월 15일 주일부터 같은 해 3 월 2일 목요일까지 단 여덟 번 발현하신 성모님께서는 그 렇게 많은 말씀을 하시진 않았지만, 그 메시지는 짧으면서 도 매우 강렬했다 필자에게 가장 강렬하게 다가왔던 성모 님의 메시지는 1933년 1월 19일 목요일 세 번째 발현에서 "나는 가난한 이들의 동정녀다 "라고 하신 것과, 다음 달 인 2월 11일 목요일 다섯 번째 발현에서 "나는 고통을 덜 어 주러 왔다 "라고 하신 부분이다 가난과 고통, 어떻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인 우리의 상황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허덕이고 헤매면서 하느님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 성모님 께서는 이런 상황을 정확히 보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그 길 을 제시해 주시는 것이다(여기서 사용되는 가난과 고통이라는 단어에 대한 뜻을 사전적이고 물질적인 뜻으로만 받아들여서는 안 되다 가난과 고통에 대한 자세한 해석은 후에 더 살펴볼 것이다)



〈어린 시절의 마리에트 베코 - 왼쪽 사진 참조〉

그렇다면 바뇌의 성모님께서는 굳이 왜 '가난'과 '고통'이라는 단어들을 언급하셨을까? 바뇌의 성모님이 주신 이러한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성모님이 발현하실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함께 성모님의 발현을 직접 목격한 마리에트 베코라는 소녀의 이야기를 지나칠 수가 없을 것이다.





좌 - 마리에트 베코의 어머니와 마리에트를 포함한 7남매

우 - 마리에트 베코의 아버지와 어머니

### 시대 상황

지금으로부터 86년 전인 1933년 1월 15일 주일, 벨기에리에주 지방의 작고 가난한 마을 바뇌에서 성모님이 처음으로 발현하셨다. 그리고 성모님을 유일하게 목격한 사람은 다름 아닌 어리고 철없는 열두 살 꼬마 소녀 마리에트 베코였다. 그녀에 대해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바로 그 당시의 상황이 아닐까 싶다.

1933년은 제1차 세계 대전<sup>1)</sup>이 끝난 지 10여 년밖에 지나지 않은 해였고, 세계는 그 전쟁으로 인해 정치 • 경제적으로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었다. 1929년 10월 미국으로부터 시작된 세계 대공황<sup>2)</sup>의 영향으로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한 채 굶주렸고, 이로 인해 사람들의 불만과 분노도 점점 커져 가고 있었다. 이런 상황 안

주1) 1914년 7월 28일부터 시작되어 1918년 11월 11일 휴전 협정으로 종결된 전쟁으로 동맹국(독일, 오스트리아-헝가리, 터키 등)과 연합국(프랑스, 영국, 러시아, 이탈리아, 일본 등, 1917년 이후 미국 가담)의 전쟁 끝에 연합국이 승리하였다. 제국주의와 제국주의 간의 갈등과 마찰로 일어난이 전쟁은 유럽 사회의 피폐와 손실을 가져왔고, 제국주의의 몰락과함께 대대적인 사회적 변화를 초래했다

주2) 1929년 10월 투기 붐이 일던 미국의 주식 시장이 갑자기 붕괴되면 서 시작된 이 공황은 전 세계로 확대되었고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물가 하락, 기업 활동의 위축 등 경기 침체를 가져오며 세계 경제를 어려움으로 몰고 갔다.

에서 신앙은 그 자리를 찾기가 어려웠고, 사람들도 하느님 보다는 당장의 먹고살 것을 해결하기에만 더 집중할 수밖 에 없었던 것이다.

마리에트 베코의 아버지 역시 전쟁이 끝나고 일자리를 잃은 상태였다. 그에게는 아내와 마리에트를 포함한 일곱 명의 아이들이 있었지만, 마땅한 직업이 없었기에 당연히 가족들은 굶주릴 수밖에 없었다. 맏이였던 마리에트 베코는 바쁜 어머니를 대신하여 여섯 동생들을 돌보았고, 어떤 때는 어머니까지 돕느라 바쁜 나날을 보낼 수밖에 없었다. 그러다 보니 성당의 교리반 수업은 물론이고 주일 미사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하는 형편이었다.

일반적이고 사회적인 시선으로 보면 마리에트 베코 는 무직의 아버지를 둔, 정말 가난하면서도 속된 말로 배 우지 못한 소녀였다. 신앙적으로도 먹고사는 문제가 있다 보니 교리는 고사하고 주일 미사도 제대로 참여하지 못하 는 소녀였다. 그런데 성모님께서는 하느님으로부터도 가 장 멀어진 것처럼 보였던 이 보잘것없는 소녀에게 나타나 신 것이었다 (본 글은 아이콜베에서 제작한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 시여! -노트르담 드 바뇌-> 영상의 내용을 편집 및 각색하여 작성한 글입니다. 아이콜베에서 제작한 동명의 영상은 유튜 브에서 '가난한 우리들의 어머니시여'라는 제목으로 검색하 시면 시청 가능합니다.)

# 봉헌의 의미

진동길 마리오



### 설날을 품은 달

설날을 품은 달. 2월입니다. 창조주께서 사랑하시는 피조물들이 다시 얼굴을 드는 달. '다시-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설렘과 함께 사랑하는 그분께 바칠 '봉헌의 의미'도 되새기게 하는 달인데요. 사

온전한 봉헌은 하느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지만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 그 새로운 기족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인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은 누구나 다 같은 마음이기에 세상에서 가장 고귀하고 소중한 가치들이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올 한 해에는 무엇을 주님께 봉헌할까. '설렘 한 스푼', '기대 한 스푼'을 넣은 따뜻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설날을 품'은 달에 '봉헌'의 의미를 되새겨 봅니다.

### 어느 시골 성당의 봉헌

어느 시골 성당에서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본당 회장님이 신자들을 독려하며 말씀하셨지요. "사랑하는 형제자매님. 우리도 회개한 자캐오처럼 재산의 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 마음으로 성전 건축을 준비합시다. 여러분들 중 집이 두 채 있는 사람은 한 채를 성전 건축에 봉헌하기로 합시다."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반대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본당 회장님은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동차가 두 대 있는 사람은 한 대를 성전 건축에 봉헌하기로 합시다." 이 번에도 모두가 큰 소리로 "아멘!" 하면서 박수를 치고 찬성 하였습니다. 본당 회장님의 말씀은 계속되었습니다.

"소가 두 마리 있는 사람."

"아메!"

분위기는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뒤쪽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할머니 한 분이 손을 들었습니다. 성당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분은 들릴 듯 말 듯 아주 작은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두들 이렇게 성전 건축을 위해서 자원하여 자기 재산의 반을 하느님께 봉헌하는데, 저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닭 두 마리 중 한 마리를 성전 건축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 모두 큰 소리로 "아멘!" 하며 찬성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그것은 안 됩니다."라고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성당에 다니는 어느 누구도 집이 두 채 있거나, 자동차가 두 대 있거나, 소가 두 마리 있는 집은 없었고, 닭을 키우는 집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든 '내-것'이라는 이름표를 붙이는 그 순간부터 '내어 놓는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 되어 버리는 것 같습니다. 마치 멍에처럼 말이지요. '내-소유'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것이 무엇이든지 타인과 나누고 싶다는 마음이 자동으로 닫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그나마 넉넉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사막처럼 되어 가고 있다는 쓸쓸한 생각이 듭니다. '조건 없는 나눔'이나 '대가 없는 희생'이라는 말이 점점 듣기 힘들어지는 이유도 '내-것'이라고 여기저기 붙어 있는 빨간 딱지들때문은 아닌지…….

'나눔'과 '희생'이라는 말들이 뉴스에서나 간간이 들리는 미담이 되어 버린 요즘.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언어에 대 해 생각합니다. 사람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는 '나눔'과 '희 생'이라는 소중한 가치들이 다시 일상을 지켜 주는 생활 용어로 돌아올 수 있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 완전하고 참다운 봉헌

'조건 없는 나눔', '대가 없는 희생'은 '신앙의 여정'에서 빠뜨릴 수 없는 사랑의 표현이자 신앙인들의 삶이지요. '봉헌'이라는 말의 뼈대를 이루는 영성입니다. 이미 그리스 도께서 앞서가신 삶이며, 지금도 여전히 진행 중인 성사입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느님 마음에 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드려야 하는 합당한 예배입니다."(로마 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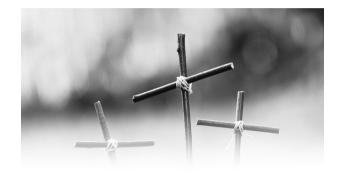
그러고 보면 봉헌은 '사랑의 여정'과 다르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려놓음"에서 시작해서 "내어 드림"으로, 그리고 마침내 "내어 맡김"으로 승화되어 가는 여정. 그리스도께서 보여 주셨던 완전하고 참다운 봉헌의 길 말이지요. 봉헌의 의미는 일반적으로 웃어른께 물건을 받들어 바치는 것을 말합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성제에서 제물을하느님께 바친다는 뜻으로 쓰고 있습니다. 때문에 '봉헌'이라고 할 때, 크게 두 가지 의미로 구별해서 사용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바침', '헌신', '헌정'의 뜻으로 쓰입니다. 봉헌되는 '그것이' 무엇이든 성스럽게 쓰이도록 따로 준비해 두는 '어떤 것'을 일컫습니다. 사람이나 물건, 장소 등을 온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세속적인 용도로부터 따로 떼어 놓아 하느님을 존경하고 숭배하기 위해 또는 하느님께 봉사하기 위해 특별히 바쳐지는 것을 가리킬 때 '봉헌'이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느님께 바치는 성사'의 의미입니다. 구체 적으로는 성찬의 전례 중에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기 위하 여 바치는 성사를 말합니다. 전례 중에 신자들의 봉납(奉 納) 행렬과 사제에 의한 봉헌 기도로 이루어지는 예식을 봉 헌이라고 하지요. 온전한 봉헌은 하느님 나라의 참된 가족이 되기 위한 초석이기도 하겠지만, 얼마만큼 하느님을 사랑하는가 하는 물음에 대한 응답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 나라, 그 새로운 가족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인 혈연관계를 넘어서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는 하느님 아버지와 함께 모두가 한 형제자매가 되는 관계의 나라이기 때문이지요.

그리스도의 봉헌으로 완성된 나라. '조건 없는 나눔'과 '대가 없는 희생'으로 이어진 관계. 사랑과 헌신으로 하나가되는 나라. 앞으로 지금—여기서부터 우리가 이루어야 할나라입니다. 우리의 성사적 관계가 '내—것' 혹은 '네—것'으로 분리되거나 육적(肉的)인 혈연이나 학연, 지연이라는 말로 '편 가름' 되지 않기를.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것임을 다시 깨달을 수 있기를 기도하며, 특별히 성모기사회 가족들 모두에게도 다가오는 한 해가 아버지께 봉헌된해로 완성되기를 바랍니다.

# 콜베 성인의 겸손 2

최문기 마티아



콜베 성인은 겸손의 덕행만이 거룩한 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겸손이 때때로 세상 속에서 실패나 패배로 드러날지라도 그것만이 세상의 힘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 십자가의 보속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겸손의 산 위에 세워져 있으며, 오로지 겸손한 인간만이 그 십자가와 연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연결된 십자가에 의해서 인간은 하느님의 사랑으로 양육되고 성장한다. 이렇듯 하느님께서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여정을 통해 스스로 정화하는 덕행을 실천하고 있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성장의 기회를 부여하신다.

막시밀리아노 마리아 콜베 신부는 그리스도와 일치하는 여정에서 스스로 정화하는 덕행을 실천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보속의 삶을 사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했다. 보속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단순히 단식이나 고행 등의 실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그런 형식적인 보속이 아니더라도, 내가 삶 속에서 직면하는 모든 약속과 일과 의무 등을 나에게 지워진 작은 십자가로 여기고, 그것을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것 또한 훌륭한 보속의 실천이 된다고 이야기하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규칙적으로 이어지는 일상의 과제 들, 시간표로 주어지는 소소한 일들, 정해진 시간에 바치는 기도 등 매일 반복되는 나의 의무와 활동을 더 잘 받아

들이고 회개와 성화로 가는 한 여정으로서 자기 포기를 실천하는 것도 강력한 보속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규칙적이고 일상적인 삶이 때로는 우리에게 크고 작은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그것을 넘어서는 겸손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자체로 우리에겐 보속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끊임없이 내적 성장의 동기를 이끌어 내는 지속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겸손의 삶은 어떤 순간 특정한 모습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삶 속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되는 것이다. 또한 우리가 그것을 하나씩 수용해 나가면서 점차 성장해 가는 것이라고할 수 있다.

### 성화의 지름길

나아가 성모님의 겸손을 배우는 것도 우리 자신을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일치로 이끄는 길이 된다. 콜베신부에게 있어서 원죄 없으신 성모님 안에는 하느님의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인간이 성화로 나아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었다. 왜냐하면 원죄 없으신 성모님을 통해서 하느님의 외아드님이 이 땅에오셨기 때문이다. 즉, 성모님은 하느님께서 직접 선택하

신 길이다.

인간은 왜 하느님께서 굳이 동정녀의 잉태를 통해서 당신의 외아드님을 지상에 보내셨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한 가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것이 우리가 생각할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선한 방법이라는 사실이다. 하느님께서는 선 자체이시며 지상의 선이시기에, 하느님의 선택에는 차선이 없으며 늘 최선의 것일 수밖에 없다. 성자께서 겸손되이 동정녀의 모태를 취하셔서 인간과 똑같이 열 달 동안 양육되시고 마침내 우리에게 나타나셨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산 제물이 되려고 오셨던 것처럼, 만약 우리가 하느님께 간구하거나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봉헌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던 방법과 길을 역행하여 성모님과의 일치와 그분의 양육을 통해서 돌아가는 것이 가장 완전한 방법이자 봉헌이될 수 있는 것이다.

### 겸손의 은총

보나벤투라는 이렇게 말한다. "성모 마리아를 거치지 않고서는 하늘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 하느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느님께

돌아갈 때는 반드시 마리아를 거쳐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성모님은 복음적 권고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복음의 기쁨이 전달되는 피라미드의 정점이고, 인간의 삶의 가치에가장 완전한 모델이 될 수 있다. 하느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로부터 인류가 퍼져 나간 것처럼, 하느님께서는 성모님 안에 당신의 섭리를 심으시고 복음 말씀은 성모님으로부터 퍼져 나가기 시작한다.

그런 의미에서 콜베 신부는 성모님을 "은총의 분배자"라고 일컫는다. 인간은 성모님의 기쁨에 동참하고 그분의 모범을 따르면서, 비로소 확실한 종교적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다. 그래서 콜베 신부는 겸손의 덕행만이 거룩한복음적 권고의 실천을 도와준다고 강조했다. 또한 겸손이때때로 세상 속에서 실패나 패배로 드러날지라도 그것만이 세상의 힘임을 결코 잊지 말라고 힘주어 말했다. "오로지 겸손만이 악마의 내적 공격으로부터 인간과 세상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겸손은 정말 작고 감추어져 있지만 영혼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온 세상이 이 위에 놓여 있습니다. 온 세상은 겸손의 유산이며 겸손은 완전한 기쁨의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극복한다는 것은 자신의 이익이나 성공에

대한 유혹을 뛰어넘어, 작고 감추어져 있지만 영혼의 주권을 가지고 있는 거대한 영적 권위로 뛰어들어서 온 마음을 열어 하느님께서 주신 선물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 모든 것은 오로지 겸손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겸손한 자에게 하느님께서는 새로운 세상을 허락하신다.

# 푸른 사막

강 아만다

세상의 모든 길이 너에게로 향해 있지만 오늘도 나는 푸른 사막을 건너 너에게로 간다 너만을 만나기 위해

겹겹이 푸른빛으로 드리워진 능선을 넘고 눈물처럼 모래알이 쏟아지는 골짜기를 지나면 마침내 펼쳐지는 그곳

세상의 모든 길이 너에게로 열려 있지만 오늘도 나는 푸른 사막을 건너 너에게로 가야만 한다 나만이 되기 위해

고고히 흐르는 은하수를 넘어 침묵이 쌓이는 보랏빛 들판을 지나면 마침내 드러나는 그곳

오직 너만이 네가 되고 나만이 내가 되어 끝이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곳

오늘도 나는 푸른 사막을 건넌다



趋分趋 孟从

한국 창조미술협회 회원

##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성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창설 배경

오정순 비비안나



###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

1930년에서 1936년까지 콜베 성인의 일본 선교 활동에 있어 분명 모든 것이 낯설고 열악했음에도 불구하고, 성인의 발자취를 뒤돌아볼 때 찬탄을 금할 수 없다. 물론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공감의 정도는 다를 수 있겠지만, 적

원자폭탄이 떨어져 폐허가 된 나가사키에서 미로하나 신부님은 갈 데 없는 고이들과 노인들을 수도원에 받아들였다. 그리고 콜베 성인의 원의인 성모기사회의 정신으로 봉헌할 또 다른 수도 공동체를 구상했다.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라치스코 수녀회의 역사는 이렇게 시작되었다.

어도 나는 그렇다. 그래서 성인의 자서전을 읽으며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성인의 생전 행보는 나의 나약한 신앙을 뒤돌아보게 했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추호의흔들림 없이 성모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완전하게 그분의도구가 될 수 있을까 하는 열망으로 내 마음속에 더욱 강한 울림이 되어 다가왔다.

콜베 신부님의 일본 선교 활동에 미로하나 신부님도 더 없는 조력자가 되어 활동하셨다. 그 가운데 1935년에는 사제품의 은총도 받으신다. 1936년 콜베 신부님이 폴란드로 완전히 귀국하신 후에는 지난 호에서 언급했듯이, 그분의 뒤를 이어 수도회의 후학 양성과 생활 전반의 책임을 맡으시게 된다. 한편으로는 그토록 존경하던 콜베 성인과 헤어지며 느끼셨을 인간적인 아쉬움과 함께, 낯선 동양의 한나라인 일본에서 새 수도원을 정립하고 뿌려진 선교의 씨앗을 육성하기 위해 소임에 열정을 다하셨을 미로하나 신부님의 모습이 떠오른다. 또한 몇 년이 지난 후, 신부님은나치의 폴란드 점령과 탄압 소식에 이어 1941년에는 콜베성인의 순교 소식까지 들으셨다. 신부님의 절절한 마음이느껴지는 순간이다. 콜베 신부님이 폴란드로 귀국하시던 1936년, 그 당시 미로하나 신부님은 28세였다.

시대적 배경으로 20세기는 그야말로 인간의 야욕이 자국의 보호와 이익이라는 명분아래 극명하게 드러나는 역사적 사건들로 뒤범벅이 된 듯했다. 1914년에 발발한 제1차 세계 대전부터 소비에트 연방 수립, 대공황, 1945년까지 이어진 제2차 세계 대전 등…….

마치 악이 미친 듯이 창궐하여 세상을 절망 속에 빠뜨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이러한 세기의 소용돌이 속에서하느님께서는 과연 무엇을 드러내고자 하셨을까? 나는 묵상했다. 그리고 성모님의 현존 체험과 그분이 입으신 특별한 은총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믿음, 그러한 성모님의 존재를 알리는 것은 물론 성모님의 더없는 열애자이자 사도인 콜베 성인으로까지 자연스럽게 생각이 이어졌다. 그러나 콜베 성인은 성모님을 통해 예견되었던 47세의 짧은 생애로 순교의 화관을 쓰셨고, 이어질 나머지 모든 결실들은 성모기사회(M. I.)를 통해 실현시키고자 하셨던 것 같다. 그런 가운데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의 역사도 시작된다. 수녀회의 창설 배경에 이러한 여러가지 시대적 • 신앙적 상황들이 있었던 것은 하느님의 예정된 섭리가 아니었을까 하고 묵상해 본다.

### 가장 낮은 곳에서 피어오르다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어 8월 9일에는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다. 일본은 그야말로 지옥 같은 불바다를 이루었고 수많은 사상자와 원폭 피해자들이 생겨났다. 그리고 비로소 일본이 패전을 받아들이면서 제2차세계 대전도 종식됐다. 그런데 이 전쟁의 이면에는 두 가지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이러한 면들을 이해해 보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는 일본의 가톨릭교회를, 좁은 의미에서는 일본 성모기사회의 영성을 이해하는 데 무관하지 않으리라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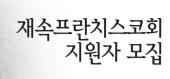
첫 번째, 최초의 원폭 투하 계획에 나가사키는 포함되지 않았다. 갑자기 바뀐 것이다. 나가사키는 일본의 로마라고 불릴 정도로 가톨릭 신앙의 구심적인 역할을 해 왔고, 지금까지도 그 역할의 비중이 크다. 그런데 왜 하필 그런 곳에서 그토록 처참한 일이 일어났으며, 하느님께서는 과연무엇을 원하셨던 것일까? 그것은 아마도 전쟁의 잔혹함과 비참함 속에서 인간의 교만과 무모한 욕망, 나약함과 함께하느님의 자비와 용서, 인류의 화해와 평화의 상징을 동시에 드러내고자 하신 것은 아니었을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처럼 당신이 사랑하는 어린양의 도시로서 나가

사키에 그 모든 비참한 상황들을 허락하셨을지도 모른다는 무상을 해 보았다. 나가사키는 현재 일본의 그 어느 지역보다도 종교나 전쟁의 역사에서 큰 아픔을 간직한 채 깊은 신앙과 평화의 상징으로 존재하고 있다.

두 번째는 8월 15일이다 일본이 전쟁 국가로서 패망한 날이지만 일본의 가톨릭 신앙에서는 해방을 이룬 날이다. 일본에 있을 때 본원의 지도 신부님께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549년 일본에 로마 가톨릭이 들어오고 나서 한동 안 가톨릭교회에 대한 심한 탄압과 금지령이 내려졌는데 여기엔 일본이 가톨릭을 받아들인 역사적 배경에 서양 문 물을 통해 이익을 보고자 하는 경제적인 측면이 있었으며 천왕을 살아 있는 신처럼 여기던 일본인들에게 가톨릭 신 앗은 자연히 적대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도 신부님이 학교에 다닐 때 신부님은 물론 신앙을 가진 학생 들은 선생님이나 학교 측으로부터 여러 모로 눈에 띄는 차 별을 받았는데 8월 15일 일본이 전쟁에 패망하면서 종교 적으로는 오히려 자유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그러한 얘기 를 들으면서 일본 가톨릭 신자들이 느꼈을 감정들을 생각 해 보았다. 이는 뒤집어 생각하면 일본에서 신앙을 전파한 다는 것이 그만큼 쉽지 않다는 뜻이다(성모기사회의 영성 또 한 마찬가지다). 다른 측면에서는 양보다 질이라는 말도 있 듯이, 일본에서 가톨릭 신자가 소수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신심이 깊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해되었다. 어찌 되었건 종전 후 많은 사람들이 정신적 • 신체적 •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은 물론이고, 부모와 가족을 잃은 전쟁고아들도 수없이 많이 생겼다. 특히 원폭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어 시내 중심부가 거의 사라진 나가사키의 피해는 처참하기 이를 데 없었다.

이러한 시기에 미로하나 신부님도 당연히 프란치스코 성인의 영성에 입각하여, 1946년 주님 공현 대축일에 배고 픔과 추위에 시달리던 전쟁고아 3명을 혼고치(本河內) 수도 원에 받아들였다. 이는 현재까지도 지속되는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의 사도직인 성모의 기사원(聖母の騎士園) 의 시작이 된다. 수도원이 받아들인 전쟁고아들과 갈 데 없는 노인들의 수가 급격히 불어나면서 생활이나 경제적인 면에서 많은 어려움에 부딪혔지만, 신부님은 그들을 돌려보내지 않으셨다. 성모님에 대한 신뢰와 의탁 속에서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다고 한다. 실제로 기도 가운데 일본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으로부터 식품 같은 경제적 지원을 받

으면서 여러 난관들을 해쳐 나갈 수 있었다. 이처럼 성모의 기사원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재정적인 면이외에도 생활적인 측면에서 도움의 손길이 절실히 필요했는데, 다수의 자매들이 자발적으로 신부님을 도우며 그곳 사람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봉사했다. 그러한 가운데 미로하나 신부님은 늘 마음속으로 품고 있던, 콜베 성인의 원의인 성모기사회의 정신으로 보다 완전하게 봉헌하며 살아갈 수 있는 수도 공동체를 본격적으로 구상하게된다. 그리고 드디어 관구장님의 허락 아래, 성모의 기사원에서 무료의료 봉사를 하고 있던 나가야마 가즈코(中山和子)를 주축으로 7명의 자매들이 청원 착의식을 하게 되었다. 이것이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 성 프란치스코 수녀회(통상성모의기사수녀회)가 창설된 역사의 시작이다. 지금으로부터 69년 전인 1949년 12월 28일의 일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가정과 세상 속에서, 성 프란치스코의 영성을 함께 나누며 살아갈 회원을 모집합니다.

만 55세 이하, 성실한 가톨릭 신자는 누구나 환영합니다.

### ● 모임 일자

비 안 네 회: 매월 둘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보나벤뚜라회: 매월 둘째 토요일 09:00 ~ 14:00 (점심, 미사포함) 콜 베 회: 매월 셋째 수요일 10:20 ~ 15:00 (점심, 미사포함) 요 셉 회: 매월 셋째 토요일 10:00 ~ 15:00 (점심, 미사포함)

● 장 소: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원(한남동) 내 안토니오 회관

전화 문의: 한남동 수도원 안내실 02-793-2070
(화요일은 휴무, 오전 10시∼오후 5시까지 문의 가능)

# 격랑을 이겨낸 보화(實華)

#### 김재원 마르가리타

어찌 보면 극동 지역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유럽의 중세 미술이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일지 모른다. 그러나 중세 필사본은 잠시만 자세히 관찰해 보아도 그에 담겨 있는 옛 필사가와 화가들의 순수한 신앙심과 하느님께로 향한 소박하고 깨끗한 마음과 마주하게 하며, 강한 종교적 감동을 느끼게 한다.

## 비잔틴 필사본 - 격랑을 이겨낸 보화

비잔틴 필사본은 동로마 제국에 속했던 지역(오늘날의 그리스, 터키와 이집트, 시리아 등 중동의 일부 지역)에서 제작된 필사본을 의미한다. 그리스도교가 동방에서 탄생하여 서유럽으로 전파되었듯이, 성서 필사본도 5~6세기에 시리아와 이집트 등 동방에서 처음 제작되었고, 이후 그리스도교의 포교 루트를 따라 섬(아일랜드나 브리튼)이나 서유럽으로 확산되었다. 대개 그리스어로 쓰인 비잔틴 필사본 원문은 후대에 서유럽에서 서서히 라틴어로 번역되어 필사되었고, 채색 삽화의 표현 기법은 비잔틴 필사본의 영향아래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한 양상으로 변형되면서 독

자적인 필사본 양식으로 거듭났다. 따라서 5~6세기 비잔 틴 필사본의 그리스도교 미술사적 의미는 결코 간과할 수 없다. 현존하는 비잔틴 초기 필사본은 매우 적다. 동로마 제국에서 100년이 넘게 폭력적으로 진행된 성상 파괴 운동(730-843년)으로 인하여, 그리고 1453년 이슬람 세력의 점령으로 동로마 제국이 멸망함에 따라 대부분 파손되거나 분실되었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초기 비잔틴 성서 필사본으로는 비엔나 창세기(Wiener Genesis), 로사노 복음서(Codex Purpureus Rossanensis), 시노펜시스 복음서(Codex Sinopensis), 라불라 복음서(Rabbula-Evangeliar), 코튼 창세기(Cotton-Genesis) 등이 꼽히는데, 그들도 운명적으로 도피에 성공하여 구사일생으로 안식처를 찾았다.

## '비잔틴(Byzantine)'이란?

비잔틴은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소아시아에 위치한 고대 그리스의 식민 도시인 비잔티움(Byzantium(라틴어); 이곳에 도시를 육성한 그리스 메가라의 왕인 비잔타스의 이름에서 유래)에서 비롯되었다. 정확하게는 "비잔티움의"라는 의미의 형용사이다. 그러니까 비잔틴 제국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하는 제국을 뜻하며, 비잔틴 미술은 비잔티움을 중심으로

전개된 미술, 즉 비잔틴 제국의 미술을 가리키게 되었다. 잠시 여기에서 이 도시의 유명을 되돌아보자

코스타티누스 대제(Flavius Valerius Aurelius Constantinus Augustus(라틴어). 재위 306-337년)가 공포한 밀라노 칙령 (313년)에 의해 그리스도교가 공인된 후 다신교를 신봉하 던 로마 제국은 엄청난 호란에 직면하게 되었다. 대제는 그 호란을 극복하고 제국을 개혁하기 위해 동방으로 세력 을 확장하려 하였다 그리하여 오랜 역사를 지닌 로마에서 비잔티움(Byzantium)으로 수도를 옮겼다(330년) 그는 새로 유 수도를 중심으로 로마 제국의 그리스도교화를 꿈꿨다. 그리고 그의 꿈을 담아 비잔티움을 "콘스타티누스의 도시" 라는 의미의 콘스탄티노폴리스(라틴어 Constantinopolis 영 어Constantinople)로 개명하였다. 사실상 로마 제국의 동로 마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리스도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 (Flavius Theodosius 재위 379-395) 시대에 국교로 선포되기 에 이른다(380년) 이 도시는 1453년 이슬람 세력에 정복 되어 이스탄불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다 오 늘날 동로마 제국과 비잔틴 제국은 같은 의미로 이해되고 있지만, 16세기에 독일의 역사학자 볼프(Hieronymus Wolf) 가 비잔틴 제국이라고 명명할 때까지 비잔티움은 완전히 잊혀졌다. 단지 동로마 제국으로 불렸을 뿐이다. 다시 말하면 '비잔틴 제국'이라는 명칭은 이교도의 제국이었던 로마 제국과는 구분되는, 제국의 천도로부터 이슬람 세력에의해 멸망하기 전까지 존립한, 그리스도교를 국교로 하던 제국의 시대를 강조하려 한 볼프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하겠다.

로마가 동과 서로 나뉜 이후, 그리스도교는 동방정교회와 가톨릭교회로 분리되었다. 동방정교회는 제정일치 체제와 정통성을 중시하였고, 가톨릭교회는 제정분리 체제와 진보적 보편성을 중시하였다. 교회의 완전한 분리는 11세기에 이루어지지만, 그때까지 종속 관계를 유지하려는 동로마제국과 그 굴레에서 벗어나고자 한 서유럽의 충돌은 피하기 어려웠다. 그리하여 심한 종교적 • 정치적 • 군사적 반목과 갈등의 기나긴 세월을 겪어야 했다. 요셉 보이스 등 많은 현대 유럽 예술가들이 '동서의 일치와 화합'을 자주 주제로 삼아 왔는데, 그러한 현상을 우리는 동양과 서양의 조화와 화합이라는 좀 더 포괄적인 의미로 파악하려 했다. 하지만 사실상 그들에게는 동로마와 서로마,

가톨릭교회과 동방정교회의 화합과 일치가 여전히 피부에 더 가까이 와 닿는 이야기이다.

### 비잔틴 필사본

대부분의 비잔틴 성서 필사본의 운명은 매우 기구하였다. 탄압과 전란을 피해 비교적 안전한 서쪽으로 이동해야 했고, 그 숨 가쁜 이동 과정에 파본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허다했다. 그래서 비잔틴 성서 필사본은 원형 그대로 온전하게 현존하는 경우가 극히 드물었다. 여기서는 초기비잔틴 시기에 제작된 몇몇 대표적 필사본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 1, 비엔나 창세기(Wiener Genesis) : 현재 비엔나의 오스 트리아 국립도서관 소장

6세기 초에 콘스탄티노플이나 시리아 지역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비잔틴 성서 필사본이다. 코튼 창세기와 함께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필사본이다. 자색의 양피지에 그리스어로 필사된 귀중본이며, 당연히왕이나 귀족은 물론 고위 성직자들의 주문으로 제작되었을 것이다. 비엔나 필사본은 원래 총 96쪽에 약 192개의

채색 삽화가 들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현재는 24쪽에 총 48개의 채색 삽화가 보존되어 있다. 모두 창세기의 내용인데, 창세기만으로 이렇게 많은 장면을 담은 필사본으로 제작한 것은 그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각 쪽마다 상 • 하단을 나누어 상단에는 텍스트가, 하단에는 그것을 묘사한 채색 삽화가 들어 있다. 채색 삽화는 당시의 다른 필사본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색상이 능숙하게 채색되었고, 형상은 투박하면서도 사실적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표현 방식은 로마 제국의 후기 회화 양식의 지대한 영향을 보여 준다. 또한 채색 삽화의 묘사 방식이나 색채의 선택으로 미루어 적어도 5인 이상의 화가가 이 필사본의 공동



그림 1. 비엔나 창세기, 우물가의 레베카와 엘리제르



그림 2, 로사노 복음서, 상단; 최후의 만찬과 세족례/ 중단; 네 예언자/ 하단; 텍 스트

제작에 참여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14세기에는 베니스에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나 1664년 비엔나의 오스트리아 국립도서관으로 들어온 후 오늘에 이른다. 비엔나 창세기는 시노펜시스 복음서나 로사노 복 음서와 같이 자색 양피지를 사용하였으며, 그로 인해 대 략 그것들과 같은 시기에 같은 곳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사악의 아내를 찾도록 보내진 엘리제르에게 친절을 베푸는 레베카(붉은 의상)가 두 번 등장한다. 먼 길을 온 엘리제르와 낙타에게 물을 주는 친절을 베푸는 것으로 그녀가 이사악의 아내가 될 여인임을 암시하고 있다. 우물가에 길게 앉아 있는 반라의 여인은 강을 의인화한 표현이다. 뒤로 메소포타미아 도시가 상징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2. 로사노 복음서(Codex Purpureus Rossanensis): 현재 이 탈리아 칼라브리아(Calabria) 주 로사노(Rossano)에 있는 종 교예술 교구박물관 소장

6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이나 시리아 혹은 안티오키아에

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역시 자색 양피지에 필 사되 그리스어 복음서이다. 명칭에 나타난 'Purpureus(자 색)'는 자색의 양피지가 사용되었기 때문에 붙여진 것이다 원래는 4대 복음서가 모두 수록된 400여 쪽의 양피지 서 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되나. 그 가운데 188쪽이 현존하며. 채색 삽화가 그려진 텍스트는 마태오 복음서 전체와 마르 코 복음서(16 14-20 제외)가 남아 있다 목차 부분(Eusebian Canons)과 4세기에 팔레스타인 지역(Caesarea)의 주교였던 유세비우스(Eusebius)의 서간이 각 복음서 앞에 수록되어 있다 필사본 서두에 그리스도의 기적과 수난 장면 등 12 점의 채색 삽화와 복음사가의 초상 2점이 수록되어 있다 각 쪽 상단에는 성서의 장면을 묘사하고 중간에는 4인의 예언자상을 배치하는 형식 그리고 상하 두 단으로 부리 된 구도 형식을 전체 쪽에 걸쳐 모두 보여 주고 있다 묘 사된 인물의 극적인 움직임과 그리스도를 강조한 용모 표 형이 주목되다

7세기에 아랍인들에게 쫓겨 칼라브리아로 피신해 온 수 사가 이 코덱스를 가지고 왔을 것으로 추정된다. 1879년 독 일의 두 개신교 신학자인 게브하르트(Oskar von Gebhardt) 와 하르나크(Adolf Harnack)가 이 코덱스를 발굴하여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세상에 알려졌다.

3. 시노펜시스 복음서(Codex Sinopensis) : 현재 파리의 프랑스국립도서관 소장

이 복음서의 명칭은 소아시아 반도 북부(현재의 터키)의 항구인 시노프(Sinop)에서 1899년에 발견된 것에서 비롯되었다. 프랑스 무관이 한 그리스 노파에게서 구입하여 프랑스로 가져온 것이다. 역시 자색 양피지에 필사되었다. 발견 당시 총 43쪽이었고, 그중 42쪽이 현재 프랑스국립도서관(Bibliothèque nationale de France)에 소장되어 있다. 마태오 복음서의 일부가 수록되어 있으며 모두 5개의 채색



그림 3. 시노펜시스 복음서, 그리스도의 기적 장면: 장님을 눈뜨게 하심



그림 4. 라불라 복음서, 그리스도의 승천 장

삽화(헤로데의 축제와 세례자 요한의 죽음, 오천 명을 먹이심, 4천 개의 먹이, 예리코에서 눈먼 두 사람을 고치시다,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시다)가 들어 있다. 비엔나 창세기나 로사노 복음서와 마찬가지로 같은 시기(6세기)에 같은 곳(시리아, 안티오키아)에서 제작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으나, 그에 대한 이견과 반론도 존재한다.

4. 라불라 복음서(Rabbula-Evangeliar) : 현재 이탈리 아 피렌체의 라우렌치아나 도서관 소장(Biblioteca Medicea Laurenziana)

시리아에서 제작한 것으로 추정되는, 4대 복음서가 모두들어 있는 초기 비잔틴 필사본이다. 고(古) 시리아어 성서이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승천, 성령 강림, 성모자상, 마태오와 요한 등 14장에 이르는 채색 삽화가 들어 있다. 여타의 필사본과 비교하면 색채, 움직임의 표현, 극적인 장면 묘사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회화적표현 방식이 매우 독보적이어서 그 미술사적 가치는 더욱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학자들 간에 제작 시기와관련하여 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나, 이 필사본은 586년자그바(Zagba)에 있는 성 요한 수도원에서 라불라(Rabbula)

수사가 제작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라불라 수사에 관해 알려진 것은 없고, 자그바는 오랫동안 북부 메소포타미아의 한 지역일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런데 현재는 시리아의 안티오키아와 아파메이아 사이의 내부 지역일 것으로 짐작되고 있다. 현재 필사본의 크기는 34×27cm이나 복원할 때 제본하면서 잘라 냈기 때문에 원래의 크기는 불분명하다. 이 필사본은 분명히 헬레니즘 미술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동시에 페르시아 장식의 흔적도 보여 준다.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과 승천, 성령 강림 등의 장면들이 이국적이고 장식적인 문양들로 꾸며져 있다. 텍스트는 검정색과 어두운 갈색 잉크로 쓰였다.

이 필사본은 14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는 시리아의 안 티오키아 교구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이후 그 소재가 불분 명하다가, 1573년 피렌체에서 발견되어 라우렌치아나 도 서관으로 들어온 후 오늘에 이르고 있다

## 5. 코튼 창세기(Cotton-Genesis) : 런던의 영국도서관 (British Library) 소장

코튼 창세기는 4~5세기에 구약 성경의 창세기를 그리 스어로 양피지에 필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19세기에 독일 의 필사본 연구가 티셴도르프(Constantin von Tischendorf)는 5세기에 제작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알렉산드리아를 그 제작지로 보는 설이 유력하다. 원래 340-360여 장면의 삽화가 들어 있는 약 440여 쪽에 달하는 필사본이었을 것으로, 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채색 삽화가 들어 있는 필사본으로 추정되고 있다.

1204년 제4차 십자군 전쟁 이후 이 필사본은 콘스탄티 노플에서 노획되었고, 베네치아의 성 마르코 성당의 아트리움에 설치할 110개의 창세기 모자이크 디자인의 근거자료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1220년대에 드러났다. 이후 두 명의 그리스인 주교가 마케도니아의 필리피에서 가져와 영국의 헨리 8세(재위 1509~1547)에게 바쳤다고 전해진다. 장서(藏書) 수집가인 코튼 경(Sir Robert Bruce Cotton, 1571~1631)의 도서관으로 들어갔다가, 1731년 코튼도서관의 대화재로 인하여 유서 깊은 필사본들이 다량 소실되었다. 코튼 창세기도 35쪽 분량만이 까맣게 그을린 상태로 남았으며, 그중 일부는 런던의 영국도서관(영국도서관은 코튼도서관에 기초하여 세워졌다)에, 나머지 부분은 옥스퍼드 대학교 보들리언 도서관(Bodleian Library, Oxford)에 소장되어 있다. 다행히 이 필사본은 대부분 17세기에 복사

되어, 복사본이 현재 파리의 프랑스국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다. 이 필사본은 가장 오래된 칠십인역 성서 필사본으로 여겨지기도 하였고, 가장 오래된 구약 성서 필사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한 필사본이라는 주장[Thomas Hartwell Horne]도 나왔으나 불분명하다.



그림 5. 코튼 창세기, 천사를 만난 아브라함 (화재에 그을린 흔적이 선명하다)

비엔나 창세기, 로사노 복음서, 시노펜시스 복음서는 모두 자색 양피지가 사용되었다는 공통점이 있다. 또한 채 색 삽화 부분에서도 핵심 주제만을 강조한 묘사와 다양하 고 섬세한 색채 표현, 사실적 비례를 무시한 어눌한 인체 묘사, 왜곡되고 평면적인 공간 표현 등은 이후 중세 성서 필사본의 주요한 조형적 특성으로 한동안 이어지게 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5~6세기에 동로마 지역에서 제작된 비잔틴 필사본은 격랑을 이겨 내고 살아남았으며, 대부분 오랫동안 망각의 세계에 묻혀 있었다. 그러다가 후대에, 특히 고전 유물의 가치에 눈뜨기 시작한 19세기에 들어와서야 새로이 발굴되어 안식처를 갖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들을 가리켜 격랑을 이겨 낸 화려한 보화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다.

# 초심

권순만 목사



나는 초심을 떠올릴 때마다 카타콤을 찾는다. 수천만 명의 목숨이 복음과 맞바꾸어진 곳. 카타콤 앞에 서면 복음의 가 치 앞에서 구태의연해진 신앙이 정화되고, 초심의 감격과 감동을 조금이나마 느끼게 된다.

### 감동의 단어

선교지에 혼자 나와 살면서 결혼 후 처음으로 8개월간 아내와 떨어져 있었다. 그리 긴 시간은 아니었지만 외국에 홀로 있다 보니 천년처럼 길어 보였고, 내가 결혼한 사람 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그리움과 사무침 끝에 드디어 아내와 딸이 이탈리아에 왔다. 신나는 마음으로 다음날 아침 'Coop'이란 대형 슈퍼 에 가서 두 봉투 가득 시장을 봐 왔다.

두 봉투를 양손에 들고 콧노래를 부르며 문으로 들어서는데 아내가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잘못한 것이 없는데 뭔가 잘못된 것 같았다. 아내는 끝내 눈물을 글썽거리며이렇게 말했다.

"우리가 사명을 위해 여기 왔지, 먹으러 왔는지 아십니까?"

감동받은 눈빛은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렇게 말할 줄 은 몰랐다. 방금 전까지 싱글벙글했던 얼굴이 시무룩해 진 채 아무 소리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혼자 중얼거렸다.

"앞으로 3개월 후에도 이렇게 말한다면 내가 인정해 주 겠소" 이탈리아에 처음 왔을 때, 먼저 오신 선교사의 방에 흑백 TV가 있는 것을 보고 심한 정죄감(定罪感)이 들었다. 텐트 치며 살 각오를 하고 온 내게 이것은 사치였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나는 20인치 컬러 TV를 샀다. 물론 언어 공부를 위해서이고, 세일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팔고 있었다는 핑계를 달았다.

이런 나 자신이었기에 아내에게도 3개월의 기간을 준 것이다. 그런데 3개월도 길었다. 한 달이 지나가기도 전에 아내의 손엔 무려 세 개의 시장 봉투가 들려 있었다.

초심! 그 순수함, 그 진지함, 그 감동, 그 열정, 그 꿈, 그 소망······

그런데 지금은 추억의 단어가 되었다.

내가 종종 카타콤을 찾는 것은, 그곳에 가면 초심이 떠오르기 때문이다. 카타콤은 순교자의 대명사와 같은 곳이다. 그러나 나는 그곳에서 복음의 가치를 생각해 본다. 현재 알려진 카타콤에만 600만 명이 묻혀 있다고 하는데, 발굴된 카타콤만 60개가 넘는다. 고대 로마의 지하는 하나의 거대한 순교자들의 무덤이다.

주님은 우주보다 한 생명이 더 귀하다고 하셨다. 그런데

한두 명도 아니고 수천 명도 아닌, 수백만 수천만 명의 생명을 복음과 맞바꾸었다. 세계 도처에선 지금도 이 복음과 생명을 바꾸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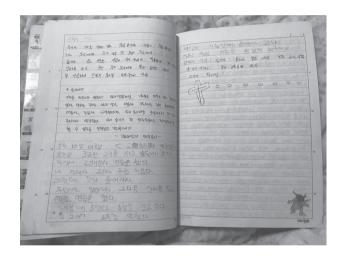
우리는 얄팍한 신앙에 비추어 구원이 십 원보다 못하다 하지만, 구원은 천문학적 수치로도 매길 수 없는 무한한 가치인 것이다.

카타콤 앞에 서면 복음의 가치 앞에서 구태의연해진 신 앙이 정화되고, 초심의 감격과 감동을 조금이나마 느끼 게 된다.

"초심은 익히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붙드는 것이다."

# 기도 일기

**박슬기** 마르타



어린 시절, 첫영성체 준비를 하면서 썼던 기도 일기를 통해 저는 프란치스칸 으로서의 제 삶의 고민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는 찾은 것 같습니다. 지금의 저보다 작고 모자라지만 주님을 향한 열망만은 훨씬 순수하고 강렬했던 그 때를 되새기면서 말입니다

### 추억의 일기장

최근 이사 준비로 짐을 싸면서 '기도 일기'라고 쓰인 공책 한 권을 발견했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어 보니 초등학교때 첫영성체를 준비하면서 제가 쓴, 말 그대로 기도 일기였습니다. 그날그날 성당에서 있었던 일화, 기도문을 외우며 힘들었던 점, 하느님과 예수님께 죄송했던 일 등과 더불어 저에 대한 반성과 기도를 쓰면 교리 선생님과 부모님이 코멘트를 달아 주는 형식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중에 기도문 외우기 시험을 봐서 통과하지 못하면 첫영성체를 못 받는다고 해서 열심히 외웠는데, 삼종 기도는 너무 어려워서 외우지 못했다며, 나만 첫영성체를 못 받으면 어떡하느냐고 써 놓은 글을 보면서 이삿짐 싸는 것도 잊고 주저앉아 크게 웃었습니다. 역시 어린아이의 눈으로 보던 그때는 참 순수하고 맑았구나 하는 생각에 피식 웃음도 나왔지만, 그때의 나만큼 주님을 열망하며 기도하던 때가 있었나 심어 죄송하기도 했습니다

유아 세례를 받고 초등학교 때 첫영성체를 받으면서 열 심히 성당에 다니던 저는 중 •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로 는 바쁘다는 이유로 아주 오랫동안 냉담을 했습니다. 대 학에 진학한 어느 날, 교회를 다니던 엄마의 친구분이 함 께 교회를 다니자고 하셨는데 "저는 천주교 신자에요!"라고 말했더니 천주교 신자인 줄도 몰랐다며 놀라셨습니다. 저는 그 말에 큰 충격을 받고 근처에 있는 성당에 다시 다니게 되었습니다. 대학생이라 이왕이면 청년회도 하고 싶어서 청년성가대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 그때는 주님을 만나러 간다기보다는 언니 오빠들과 모임을 가지며 성가대 활동을 하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열심히 다녔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성가대 활동을 관둔 뒤엔 늘 하던 것을 하지 못한다는 허무함에 또다시 냉담을 했습니다.

### 탕자, 마르타!

그렇게 미사도 드리지 않고 무력하게 지내던 어느 날, 아는 언니가 우연히 성모기사회를 함께 해 보지 않겠냐고 권했습니다. 단체 이름이 무척 신기하다고 생각하면서 의심반 기대 반으로 나가게 된 성모기사회는, 그간 회원들과의 친목이나 즐거움만을 좇던 저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제대로 바쳐 본 적도 없던 묵주 기도를 시작으로, 신부님의 강론은 저에게 너무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지도 신부님이셨던 박상규 마리야고보 신부님은 어려워하는 저희를 위해 계속 설명해 주셨지만, 저도 참 꾸준히 게으름

을 피웠지요. 부끄럽게도 어느 날은 일이 있어서, 또 어느 날은 하기 싫다는 핑계로 드문드문 나가기도 했습니다. 그러다 너무 힘들어서 1년간 활동을 쉬기도 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박상규 신부님께서 고문님이셨던 김종국 요셉 님 댁으로 저를 부르셨습니다. 1년간 지은 죄(?)가 있어 갈까 말까 많은 고민 끝에 긴장하며 문을 두드렸습니다. 신부님께서는 저를 보며 한마디 하셨습니다. "마르타, 이제 방학끝내고 다시 돌아와야지?"

무심하게 툭 던져진 말 같았지만, 성경에서 읽었던 돌아 온 탕자의 구절이 생각나는 순간이었습니다. 너무 어려웠 던 강론도, 나를 힘들게 했던 임원이라는 자리도, 아무것 도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아, 주님이 부르시는구나. 이제 그만 방황하고 열심히 해야겠다.'

### 우리는 모두 프란치스칸

올해 저는 유럽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성모기사회 활동을 하면서 알게 된 프란치스코 성인의 고향인 아시시 를 찾았는데, 백색의 아주 평화로운 도시였습니다. 프란치 스코 성인의 유해가 있는 성 프란치스코 성당, 다미아노 십자가 원본과 클라라 성녀 유해가 있는 산타 키아라 성 당 등 여러 곳을 다니면서 뜻 깊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곳은 역시 성 프란치스코 성당이었습니다. 조토가 그린 프레스코화로 유명한이 성당은 신부님들의 강론에서도 여러 번 등장하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서 다 허물어져 가는 내 집을 수리하여라."라는 음성을 들은 곳으로 유명합니다. 내 집이란 가톨릭교회를 의미합니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물려받은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평생 동안 그 뜻에 따라 살게 됩니다. 여기서 저는 의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사실 이런 큰 성인에 비하면 나는 참 작고 작은 존재인데, 과연 나는 프란치스칸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할까?' 그래서 여행 중에 기적의 메달을 들고 기도하면서 다니기도 했고, 성당에 들어가면 주님께 이런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면 감사 기도를 드리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또부족했습니다.

성 프란치스코 성당 지하에 가면 글을 쓸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렇게 적고 왔습니다. '참 부끄러운 모습으로 많이 살아왔지만, 앞으로는 참된 프란치스칸으로 살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사부 성 프란치스코의 발자취를 따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사는 것이 프란치스칸의 길



인데, 과연 나도 그렇게 향기롭게 살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끝에 어릴 때 제가 썼던 기도 일기에서 조금이나마 해답을 얻었습니다. 지금의 나보다는 좀 더 모자라고 더 작지만 주님을 열망하던 마음만은 컸던 그때의 마르타처럼 기도하고 주님을 열망하다 보면, 그분을 더 닮아가지 않을까 합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나눔 시간에도 '이달에는 묵주 기도를 얼마 바치지 못했고 부족하게 살았습니다.'라는 기도만을 했다면, 앞으로는 나를 더 사랑하며 나누어야겠습니다. 언제 다시 가게 될지는 모르지만, 아시시를 한 번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좀 더 프란치스칸 다운 프란치스칸이 되고 싶습니다. 그대까지 열심한 삶을 사는 마르타가 되기를 바라 봅니다. 그리고 성모기사회 여러분 모두 프란치스칸으로서 제 곁에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메

# 프란치스코의 벗 미사

은인들과 관심 있는 모든 분이 함께하는 감사와 나눔의 시간입니다.

- 대 상 : 성소후원회원, 해외선교후원회원, 성모기사회원 재속프라치스코회원, 일반 신자

- 내 용 : 미사 전 칠락묵주기도와 고해성사

미사 중 프란치스칸 영성 강좌 및 양형영성체 미사 후 성인유해 축복 또는 안수기도

## ● 미사 안내

지역	장 소	시 간	월모임	전 화
대구	월배 성당	오후 7:30	둘째 화	053-636-1302
부산	대연동 성당	오전 10:30	둘째 수	051-622-0635
	기장 성당	오전 10:30	넷째 토	051-721-2273
서울	한남동 수도원	오전 10:30	셋째 월	02-793-2070
인 천	갈산동 성당	오전 10:00	셋째 토	032-513-4601

## • 성소모임 안내

담 당 : 홍민용 알로이시오 신부

대 상 : 중학생부터 대학생, 일반인 미혼남성

**남부 모임** / 대구 : 월배 수도원

053) 636-7427 (매월 둘째 토요일 오후 4시)

북부 모임 / 서울 : 한남동 프란치스코 수도원

02) 793-2070 (매월 둘째 주일 오후 2시)

# 성소후워회

수도회의 수도자 양성과 교육을 위해 도움을 주실 벗을 기다립니다.

##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140-002-932457 국 민: 026-01-0344-810

지 로: 7620247

## 해외 선교 후원회

해외 선교를 위한 수도회의 역할과 사명에 함께하 실 벗을 기다립니다.

## ● 후원 계좌 안내

예금주: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신 한: 140-009-830476 농 협: 301-0116-9633-21 국 민: 295401-01-183491

성모기사회 미사 · 월모임 안내

지 역	월 모 임	시 간	장 소	연 락
대 구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프란치스카눔(월배 수도원 뒤)	
	셋째 토요일	오후 7:00	프란치스카눔(작은 꽃모임)	053-636-7427
	넷째 주일	오후 2:00	월배 수도원(7080 젊은이 모임)	
대 전	둘째 토요일	오전 10:00	대흥동 성당 (1층 경당)	042-256-6562
부 산	키케 드 A A	오전 10:30	기장 성당	051-721-2273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대연동 성당	051-622-0635
	첫째 주일	오후 12:00	대연동 성당(작은 꽃모임)	051-622-0656
부 천	셋째 토요일	오전 10:00	중1동 성당	032-325-0342
서 울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한남동 수도원	02-793-2070
수원 · 안잉	· 넷째 토요일	오전 10:00	매교동 성당	031-233-7185
양 평	첫째 토요일	오전 11:00	양평 수도원	031-771-6138
인 천	첫째 토요일	오전 10:00	갈산동 성당	032-513-4601
전 주	카페 드스이	오전 10:30	효자동 성당	063-223-3821
	첫째 토요일	오후 7:00	효자동 성당(작은 꽃모임)	
제 주	첫째 주일	오후 12:00	광양 성당	064-753-4498
	첫째 토요일	오후 5:00	동문 성당	064-757-8866
미국	첫째 토요일	오전 10:30	토랜스 성프란치스코 한인성당	1-310-380-4647
호 주	둘째 화요일	오전 11:30	멜버른 한인성당	61-422-673-889

<sup>※</sup>고해성사 및 묵주기도는 미사 30분 전부터 있습니다.

#### ● 후원금 안내

이 책은 회원들의 후원금으로 만들어지는 순수 종교 잡지입니다. 학교, 병원, 회사, 복지 시설 등으로 무료 배포되며, 매월 첫째 주 토요일에는 모든 회원과 봉사자들을 위한 미사와 기도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 ● 지로번호

7529076

#### 짜동◎I체 할 때 (사무실로 확인전화 부탁드려요)

예금주 : (재) 천주교 꼰벤뚜알 프란치스코 수도회

국 민: 031601-04-200636 농 협: 317-0007-3146-21 신 한: 140-012-038430 우 리: 1005-803-349775 우체국: 102566-01-005494 하 나: 274-910011-99204

#### ● 해외에서 송금할때

Bank Name(은행명) : Hana Bank SWIFT CODE : KOEXKRSE Address(주소) : Seoul Korea

Account(계좌번호) : 274-910011-99204

Beneficiary(수취인): Order of Friars Minor Conventual

#### 성모님의 마음을 담은

# 성모기사

등록번호 : 경기 라 00521 2019년 2월 통권 505호

발 행 인:정진철 편 집 인:구원모

편 집 전 구현모 편 집 장 : 윤지영

편집위원 : 김지영, 이상태

편 집:기획 – 김영태, 안춘옥

사진 – 김윤범, 홍민용

인 쇄:명 조

발 행 처 : 재단법인 꼰벤뚜알 프란치스코회

성모기사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로6가길 35

(구 : 서울특별시 종로구 혜화동 5-92) 우편번호: 03067

전 화: 02-745-6134 (사무실)

팩 스: 02-745-6135 홈페이지: ofmconv.or.kr

전자우편: mikorea@catholic.or.kr





원죄 없으신 성모의 기사회 "마리아처럼, 마리아를 통해, 마리아 안에서, 마리아와 함께"